

스페인의 사회불평등 1)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이 글은 스페인 사회의 사회불평등 현상을 계층간 불평등과 지역간 불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스페인은 20세기에 들어서서 농·어업 중심국가에서 공업화 단계를 거쳐 3차산업 중심국가로 변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중단계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자영업자층을 중심으로 한 구중단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한편 스페인 사회의 계층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스페인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각 지방이 상이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회경제지표들은 지난 20여년간 지역간 불균형과 편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17개 자치주들을 “선진지역,” “중간지역,” 그리고 “후진지역” 등으로 범주화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살펴본다.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각 자치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스페인 사회가 갖는 다양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토의한다.

1. 서론

본 논문은 스페인의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현상을 탐색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페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이 나라에 대한 국내의 사회과학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공업국가들과 구분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스페인은 1970년대 중반까지 프랑코의 독재체제 하에 있었고 1975년 프랑코 사후에 점차 민주화의 과정을 겪어 나왔다. 1976년에 정치개혁법 제정을 통해 정당과 노조를 합법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40여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1978년에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국제관계를 보면 유엔에 가입한 것이 1955년이고, 유럽경제공동체(EEC)와 나토(NATO)의 회원국이 된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이다.

경제적으로는 중북부 유럽국가들에 비해 개발이 뒤쳐져 있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2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발전속도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어 농업중심의 서남부 지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의 2000년 국제지역연구 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역과 공업중심의 동북부 지역으로 2원화 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극화 또는 다극화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층연구에서는 개인 또는 가구가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고, 역사적으로 각 지방이 상이한 사회경제구조와 문화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가 보다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스페인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전체 사회의 계급 및 계층구조와 각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스페인 개관

스페인은 506,000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로공동체(UE) 15개국 중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크다. 인구는 4,050만명(2000년 1월 기준)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다섯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자치주(Comunidad Autónoma)별로 보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2개의 자치시(Ceuta와 Melilla)를 제외한 17개 자치주 중 인구수로는 안달루시아(Andalucía)가 7,340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까탈루냐(Cataluña) 6,262천명, 마드리드(Comunidad de Madrid) 5,205천명, 발렌시아(Comunidad Valenciana) 4,121천명 등의 순이다.¹⁾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요소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이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두 사회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많이 발견된다. 국토의 면적으로만 보면 스페인이 남한보다 5배 이상 넓지만 인구수로는 한국이 조금 더 많다. 1인당 국내총생산을 보면 스페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지만,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²⁾ 물론 이러한 지표들 이외에 오랜 기간 군사정부 하에 있었고 외세가 가세한 내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쟁은 좌우의 이념적 대립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전쟁은 스페인의 경우 1936년에서 1939년까지, 한국은 1950년에서 1953년까지로 했수로도 각각 4년에 걸쳐 있었으며, 이 기간 중 극심한 인적, 물적 희생이 있었다.

지난 1세기간의 변화를 보면 스페인은 농어업 중심국가에서 공업화 단계를

1) <http://www.ine.es>, 2001년 9월 28일 접속.

2) 1999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은 스페인이 15,020불, 한국이 8,680불로 나타나 있다(통계청, 2000: 536-537).

거쳐 이제는 3차산업 중심국가로 변모하였다.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농업중심 사회였다. 그러나 1960-1990년의 기간 중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하여 특히 농업인구는 1960년 41.7%에서 1990년에는 11.8%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70년을 정점으로 광공업인구도 그 이후 감소하고 있고 그 대신 서비스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본다. 2000년 현재 농업 등 1차산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반면에 서비스업 종사 인구는 6할을 초과하게 되었다(<표 1>).

<표 1> 산업부문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1900-2000

연도	산업부문		
	농어업	광공업 ²⁾	서비스업
1900	67.8	15.2	17.0
1910	64.2	16.2	19.3
1920	59.2	22.0	18.8
1930	47.1	31.2	21.7
1940	51.9	24.0	24.1
1950	49.6	25.5	24.9
1960	41.7	31.8	26.5
1970	29.1	37.3	33.6
1980	18.6	36.4	45.0
1990	11.8	33.4	54.8
2000 ¹⁾	7.4	30.6	62.0

주: 1) 2000년은 3/4분기 자료.

(단위: %)

2) 광공업에 건설업 포함.

자료: del Campo(1994: 486); Anuario El Pais(2001).

한편 삶의 질에 있어서 스페인은 선진국임에 틀림없으며, 유엔개발계획에 의해 인간개발상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를 보면 1998년도 기준으로 스페인은 21위를 보이고 있다(UNDP: 2000).³⁾ 그러나 스페인은 유로공동체 15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며 단지 그리스(25위)와 포르투갈(28위)을 앞설 뿐이다.

2. 계급의 구성과 변화

먼저 스페인 사회 전체의 계급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급의 구성은 계급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그 범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계급을 어떤 이론적 입장과 시각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노동계급의 범위를

3) 참고로 한국은 31위를 기록하였다.

넓게 확장할 경우 노동계급의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중간계급의 경계를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중간계급이 다수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스페인 사회의 계급구조에 대한 연구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여러 형태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급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상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산미겔(San Miguel, 1980)이 정리한 자료를 통해 분류상의 문제점과 이들 상반된 입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1970년대 초반의 것으로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류기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분류기준에서 상류계급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준 I과 기준 II에서는 하류계급의 구성비가 중간계급의 2배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반면에 기준 III에서는 중간계급의 비율이 하류계급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의 것은 1973년에 발간된 따마메스(Ramón Tamames)의 연구서에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류한 것으로, 상류계급에는 군부, 교회, 지주, 그리고 소수의 금융 및 산업 지배세력이, 중간계급에는 의사, 변호사, 기타 전문직, 공무원, 중소기업주 등이, 그리고 노동계급에는 소농, 농업노동자, 산업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분류했을 때 경제활동인구의 7할이 노동계급(여기서는 하류계급과 동일하게 사용됨)에 속하게 된다. 두번째의 것은 데미겔(Amando de Miguel)의 1970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고위 관리직을 상류계급으로, 중간기술직, 수공업자, 사무직의 1/2 및 농업경영주를 중간계급으로, 그리고 사무직의 1/2, 산업노동자, 농업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하류계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중간계급이 27.4%, 그리고 하류계급은 68.8%를 보이고 있다. 이들 두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의 것은 데미겔의 자료에서 사무직 전체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농업경영주 모두를 중간계급에 포함시킨 후 계산한 것으로 중간계급의 규모가 하류계급보다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변적” 중간계급에 속하는 직업 집단을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계급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미겔의 표현대로 스페인 사회가 “노동자공화국(república de trabajadores)”인가 아니면 “중간계급사회(sociedad de clases medias)”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표 2> 분류기준에 따른 계급구성의 차이(1970년경) (단위: %)

계 급	기준 I	기준 II	기준 III
상류계급	2.5	3.7	3.7
중간계급	28.0	27.4	50.6
하류계급	69.5	68.8	45.7

자료: San Miguel(1980: 9장)에서 계산.

그렇다면 스페인 사회에서 계급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계급구조나 그 변화에 대한 연구가 드물지는 않으나 앞서 지적한대로 개별 연구자들의 계급분류기준이 다르고 또한 활용된 자료가 일관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떼사노스(Tezanos, 1980)와 까르보니(Carboni, 1984)의 연구가 주목되고 있으며, 스페인 사회의 계급구조를 설명하는 이들의 분류틀을 사용하여 지난 30-4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Encuesta de Población Activa) 자료를 사용하여 계급분류작업을 하였다.

떼사노스는 계급을 부르주아지, 소부르주아지, 신소부르주아지, 그리고 노동자계급 등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의 계급 범주에 따르면, 1960년대 이래로 소부르주아지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신소부르주아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3>). 1964-1991년간 약 30년동안의 변화를 보면 부르주아지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노동자계급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 한편 까르본이는 계급을 소유계급(las clases propietarias)과 피고용계급(las clases asalariadas)으로 대별하고, 각각을 부문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표 4>). 먼저 소유계급은 자본가와 자영업주로, 그리고 피고용계급은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로 구분한다. 까르본이는 1970년대 이후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그 이전 시기의 자료는 가용치 않다. 그러나 이 분류에 따르면 소유계급, 특히 자영업주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피고용계급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피고용계급 중에서 정신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육체노동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까르본이는 서비스직 종사자를 정신노동자와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있고, 떼사노스도 피고용 서비스노동자를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한다. 분류기준의 차이에 따라 그 수치가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서 신중간계급(신소부르주아지 및 피고용계급의 정신노동자)의 성장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급(la clase obrera)에 대한 추정은 이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 계급구조의 변화 (Tezanos의 분류)

(단위:%)

연도	부르주아지	소부르주아지	신소부르주아지	노동자계급
1964	2.9	28.9	10.5	56.6
1972	2.8	22.0	18.2	56.0
1976	3.3	20.0	21.7	54.1
1981	3.1	21.6	22.3	52.1
1986	3.4	21.9	25.4	48.3
1991	3.9	18.7	28.4	48.3

자료: Tezanos(1980); del Campo(1994).

<표 4> 계급구조의 변화 (Carboni의 분류)

(단위:%)

연도	소유계급	부문		피고용계급	부문	
		자본가	자영업주		정신 노동자	육체 노동자
1972	31.4	4.9	26.6	66.8	26.7	40.1
1976	29.5	5.2	24.4	69.4	30.2	39.2
1981	30.2	4.9	25.3	68.7	31.8	36.8
1986	29.9	4.8	25.1	68.7	35.7	33.0
1991	24.8	5.4	19.4	72.6	39.7	32.9
1999 ¹⁾	21.5	5.4	16.1	78.4	48.6	29.8

주: 1)1999년도는 까르보니의 기준에 준거하여 추정된 수치이며,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비는 1995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자료: Carboni(1984); del Campo(1994).

<표 3>와 <표 4>의 자료는 모두 1991년까지만 제시되어 있고, 그 이후의 변화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가용한 가장 최신의 자료인 1999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의 지위 분포를 보면 자영업자가 21.5%, 피고용자가 78.4%로 나타나 있다(<표 5>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자영업자(trabajadores por cuenta propia)는 소유계급과 유사한 범주를 가리키고 피고용자(asalariado)는 피고용계급과 거의 동일한 범주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까르보니의 자본가는 고용주(empleador)와 중복되고, 자영업주는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영주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간주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표 5>에서 조합원과 가족종사자는 까르보니의 자영업주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때, 1999년도에 까르보니의 분류에 따른 계급별 구성을 보면 자

본가가 5.4%, 자영업주가 16.1%가 되는 셈이다. 자본가는 큰 변화가 없으나 자영업주는 지난 10년간 더 감소하여 1991-99년 사이에 소유계급은 24.8%에서 21.5%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피고용계급은 이 기간 중 72.6%에서 78.4%로 증가하고 있다. 종사상의 지위 자료만으로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구성을 추정해 낼 수는 없지만 정신노동자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0-1993년간의 변화를 보면, 전문직-관리직-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는 +18.7%에서 28.1%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생산-기능직-단순노무자 등 육체노동자는 38.7%에서 35.1%로 감소하였다.⁴⁾ 1990년도에 정신노동자 대 육체노동자의 비는 55 : 45 이었으나 5년후인 1995년에는 62 : 38 로 바뀌고 있다(INE, 1997: 145-147). 1995년도의 정신노동자 대 육체노동자의 비를 1999년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각각 48.6%, 29.8%가 된다.

소유계급의 감소와 피고용계급의 증가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81-99년 기간 중 소유계급은 30%에서 21%로 감소하고, 피고용계급은 69%에서 78%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이 기간 중 농어업 등 1차산업 종사인구는 29.1%에서 7.4%로 감소하였었다. 농어업이 주로 자영업주나 가족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소유계급의 감소는 농어업인구의 감소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종사상의 지위 분포, 1999

종사상의 지위	%
자영업자	21.5
고용주	5.4
자영업주/독립노동자	13.0
조합원	0.7
가족종사자	2.4
피고용자	78.4
공공부문	16.3
민간부문	62.1
기타	0.1
계	100.0

자료: INE(2000: 22).

4) 1994년 이후의 직업자료는 직업분류체계의 변화로 그 이전과 직접 비교가 어렵게 되었다.

지난 30여년간의 스페인 사회의 변화를 요약하면, 정신노동자 또는 신소부르주아지로 범주화될 수 있는 신중단계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육체노동자 또는 노동자계급으로 간주되는 계급범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을 볼 수 있다. 소부르주아지 또는 자영업주층의 구중단계급도 점차 감소해왔다. 그러나 구중단계급의 감소는 산업구조의 변화, 즉 농어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감소와 궤를 같이 해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어업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해온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각 분류범주의 점유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 추세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성의 불평등

전통적인 계층 및 계급연구에서 성(gender)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권익 신장 등의 영향으로 계층연구에서 성의 변수는 중요하게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계급 및 계층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계급분석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남성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저조한 여성의 다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어 분석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성은 계급과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계급 또는 계층에 있어서는 이층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특정 직종에서는 여성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도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스페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용한 자료를 통해 불평등의 두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취업기회의 성별 불평등, 즉 여성의 점유비율을 들 수 있다. 유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1999년도 기준으로 남성 100명당 여성 57명이 일하고 있다. 이 수치는 1990년 47명과 비교해보면 다소 늘어난 수치이다. 개별 직업군별로 보면, 사무직원과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에 생산직 근로자인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는 남성 100명당 여성은 9명에 그치고 있으며,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은 16명에 불과하다(<표 6>). 1997-98학년도에 각종 대학에 등록한 학생 157만명 중 53.2%가 여학생임을 고려해보면(INE, 2000: 15) 스페인 사회에서 여성(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1990년대 중반을 고비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1999년에 남성 11.1%, 여성 23.0%를 보여줌으로써 유로공동체 15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여기서 스페인의 낮은 출산력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유의해 보아야 한다. 기혼여성당 평균자녀수는 1998년에 1.15명을 나타내고 있어 이탈리아(1.19명)와 함

께 유로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다. 프랑스(1.75명)나 영국(1.72명)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유로공동체의 평균(1.45명)에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는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인력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소득 등 경제적 보상에 있어 성별 격차는 여전히 스페인 사회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그 격차가 더 크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페인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남성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는 남성의 72.3%이지만 특히 사무직의 경우 이 보다 더 낮아 65.5%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남녀간에도 명료하게 나타난다. 성별 임금격차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공히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등교육(하)과 정규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차이는 더 크다. 정규대학(5년제) 졸업자 경우에는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1%에 불과하다(INE, 1997).

그러나 여성의 권한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은 스페인이 그렇게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행정직 및 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직 및 기술직의 여성비율, 그리고 여성 1인당 실질 GDP 등을 고려한 여성권한신장척도에서 스페인은 19위를 보여주고 있고, 유로공동체 중에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앞선 순위이다.⁵⁾

<표 6> 경제활동인구의 직업별 구성비 및 여성비, 1995

직업군	구성비(%)	여성비 ¹⁾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8.4	47
전문가	10.2	96
기술공 및 준전문가	7.4	53
사무직원	10.1	116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3.9	113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0	38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7.3	9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1.1	16
단순노무직근로자	14.5	84
계 (전체)	100.0 (11,995,000)	53

주: 1)여성비는 남성 100명당 여성수입.

자료: INE(1997: 표 4-15)에서 계산.

5) 한국은 63위로 크게 뒤쳐져 있다(UNDP, 2000: 165).

<표 7> 직종, 성별 사무직과 생산직 평균소득

(단위: Pts.)

구분	남자(A)	여자(B)	B/A
사무직	354,244	232,055	65.5
생산직	203,513	147,057	72.3
전체	263,172	200,023	76.0

자료: INE(2000: 20).

4. 지역 불평등

스페인인 15세기말 통일국가를 이루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이한 지역들의 이합집산으로 이어져왔다. 따라서 지방 자치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큰 편이다. 산업구조도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2000년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종사 인구의 비율을 보면 마드리드(0.8%), 바스크(1.6%), 발레아레스(1.7%), 까탈루냐(2.7%)주는 낮고, 반면에 갈리시아(17.1%), 엑스트레마두라(16.8%), 안달루시아(14.2%)는 높다. 실업자의 비율도 안달루시아(24.9%)나 엑스트레마두라(23.0%) 등은 전국 평균(13.7%)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발레아레스(4.5%)나 나바르라(6.1%), 아라곤(7.0%), 리오하(8.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999년도의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바스크(32만2천 Pts.), 마드리드(30만8천 Pts.), 나바르라(28만9천 Pts.)는 높고, 무르시아(21만9천 Pts.), 엑스트레마두라(22만1천 Pts.), 가스피야-라만차(22만7천 Pts.)는 낮아, 바스크는 무르시아의 1.47배에 이른다. 여성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커서 최고인 마드리드(23만5천 Pts.)는 최저인 엑스트레마두라(13만4천 Pts.)의 1.75배나 보여주고 있다. 한편 1인당 분기별 평균지출을 보면 마드리드가 311,128 페세타로 가장 많고 엑스트레마두라가 192,733 페세타로 가장 낮아 마드리드가 엑스트레마두라보다 1.61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사회의 계층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지역간 차이와 불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 각 자치주별 주요 경제지표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 각 자치주별 주요경제지표, 2000

자치주	인구수(명)	실업률	산업구성 (%)		1인당 국내총생산 지수	1인당 평균지출 (페세타)
			농어업	서비스		
전체	40,499,791	13.7	7.4	62.0	100.0	251,385
바스꼬	2,098,596	11.9	1.6	60.8	114.6	255,540
마드리드	5,205,408	11.2	0.8	73.3	126.5	311,128
나바르라	543,757	6.1	6.9	54.3	117.2	306,465
칸따브리아	531,159	13.0	7.1	59.9	92.9	290,213
아스투리아스	1,076,567	15.5	8.5	58.8	85.4	248,898
아라곤	1,189,909	7.0	7.5	55.9	108.9	274,592
까탈루냐	6,261,999	8.2	2.7	60.2	123.6	281,867
발레아레스	845,630	4.5	1.7	75.5	154.5	286,051
까스티야-레온	2,479,118	13.5	9.9	59.0	91.7	234,881
리오하	264,178	8.1	10.0	48.4	112.3	238,919
안달루시아	7,340,052	24.9	14.2	61.6	72.3	216,306
발렌시아	4,120,729	11.1	5.1	59.7	99.7	236,465
까스티야-라만차	1,712,529	11.6	11.3	55.1	80.0	230,275
갈리시아	2,731,900	14.4	17.1	52.7	84.4	237,398
까나리아스	1,716,276	13.2	5.8	73.6	97.5	216,518
무르시아	1,149,328	13.8	11.3	58.9	80.0	218,268
엑스트레마두라	1,069,420	23.0	16.8	56.9	73.3	192,733

주: 1)인구는 2000년 1월 1일 현재 통계임.

2)실업률 및 노동력의 산업별 구성은 2000년 3/4분기 자료임.

3)1인당 평균지출은 2000년 2/4분기 기준임.

4)세우파 및 메리야 등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두 자치시는 제외.

자료: INE(2001); El País(2001).

<표 9> 가구당 가처분 소득 비교

(전국 평균 = 100)

연도	최고		최저		지수 차이 (최고 - 최저)
	자치주	지수	자치주	지수	
1967	바스꼬	139.2	엑스트레마두라	65.9	73.3
1975	마드리드	126.1	엑스트레마두라	71.3	54.8
1985	발레아레스	146.1	엑스트레마두라	75.1	71.0
1995	발레아레스	138.0	안달루시아	75.3	62.7
1998	발레아레스	135.6	안달루시아	75.9	59.7

자료: *Anuario El País*(2001: 446).

그러나 여러 사회경제지표들은 지난 20년간 지역간 불균형과 편차가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주간의 격차 감소는 가구당 소득 변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 바스꼬는 스페인 전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39.2를 기록하였으나 엑스트레마두라는 65.9를 보임으로써 그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그 이후 1975년을 예외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용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1998년도에 이르러서는 가장 높은 발레아레스가 135.6이고 가장 낮은 안달루시아는 75.9로 나타냄으로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스페인 사회에 대한 계층연구자들은 지역 내적 불평등보다는 지역간 불평등 현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 연구자들은 50개의 행정군(provincia)을 기본 분석단위로 각 지역의 직업구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8개의 스페인”(Linz and de Miguel, 1966), “5개의 스페인”(Torres, 1993), 또는 “17개의 스페인”(de Miguel, 1994)과 같이 분류하곤 하였다. 구획 범주수가 각각 다르고, 또한 분석한 시기가 달라 서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예컨대, 린스와 데미겔(Linz and de Miguel)은 1950년대의 스페인을 ①부르주아지역, ②프롤레타리아 전이지역, ③중간계급 전이지역, ④중간계급 지역, ⑤대농(大農) 전이지역, ⑥대농 지역, ⑦프롤레타리아 지역, ⑧마드리드 지역 등으로 나누었으며, 토르레스(Torres)는 1970년대초의 스페인을 ①공업지역(La España industrial), ②저개발지역(La España subdesarrollada), ③도시의 전통적 중간계급지역 (La España de las clases medias tradicionales urbanas), ④서비스중심지역(La España de los servicios), ⑤농촌지역(La España rural) 등으로 구분하였다. 데미겔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노동자의 비율을 대비하여, ①전문직 지역(1개 군), ②관리직 지역(11개), ③중간지역(23개), ④농촌지역(15개)으로 나누고, 중간계급과 단순노동자를 대비하여 ①부르조아 지역(8개), ②중간계급 지역(16개), ③전이 지역

(15개), ④프롤레타리아 지역(11개)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17개 자치주들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자치주들이 어떻게 범주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1차산업 종사인구비율, 실업률, 1인당 평균지출 및 1인당 국내총생산지수(스페인 전체를 100으로 함) 등 4개의 변수를 기초로 17개 자치주에 대한 집락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패키지프로그램은 Statistica를 사용하였으며, 연결방식은 평균연결법으로 하였다. 분석에 포함시킨 변수와 연결법의 종류에 따라 집락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할 경우 큰 그림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간 상관계수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으며, 집락분석에서 얻은 나무그림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17개 자치주의 주요 경제지표간 상관계수표, 2000 (N=17)

지 표	X1	X2	X3	X4
1차산업인구비율(X1)	1.000			
실업률(X2)	.653**	1.000		
1인당 평균지출(X3)	-.692**	-.685**	1.000	
1인당 국내총생산(X4)	-.813**	-.799**	.744**	1.000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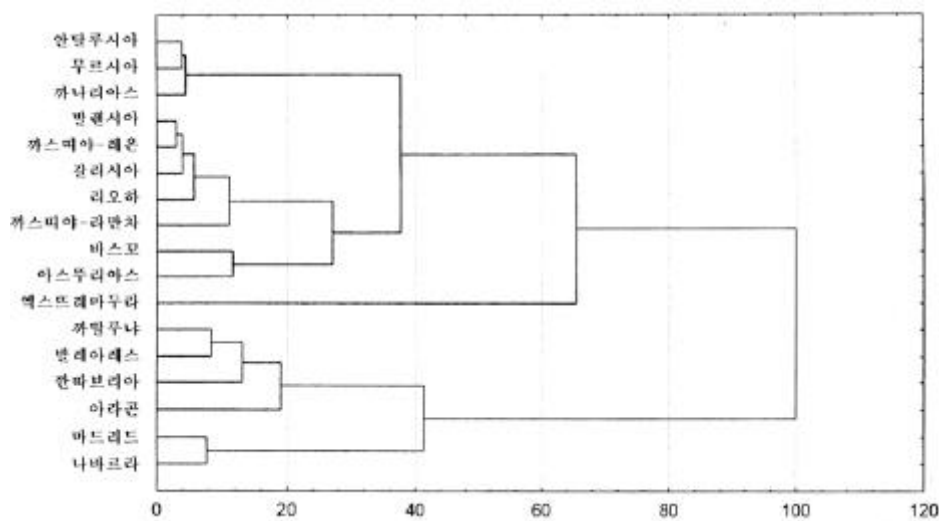


그림 1. 17개 자치주의 나무그림

17개의 자치주가 하나의 집락으로 모두 묶이는 단계를 100으로 할 때 30정도에서 구획을 짓는다면⁶⁾ 스페인의 17개 자치주는 5개의 집락으로 묶을 수 있다. 즉, (1)안달루시아, 무르시아, 까나리아스 등 3개주, (2)발렌시아, 가스띠야-레온, 갈리시아, 리오하, 가스띠야-라만차, 바스꼬, 아스뚜리아스 등 7개주, (3)엑스뜨레마두라 1개주, (4)까딸루냐, 발레아레스, 칸따브리아, 아라곤 등 4개주, 그리고 (5)마드리드, 나바르라 등 2개주로 범주화된다. 그러나 (4)와 (5)는 40정도에서 다시 묶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집락으로 하여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이들 각 집단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집단구분을 하면 <표 11>과 같아진다. 표에 제시된 평균값은 각 자치주의 인구수에 따라 가중치를 준 값이 아니라 각 자치주를 동일한 단위로 간주하여 단순 산술평균해서 얻은 값이다.

표에서 보면 집락 4에 유일하게 속해 있는 엑스뜨레마두라는 모두 사회경제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락 1에 속한 7개주는 산업화의 정도가 가장 높고, 실업률도 낮으며, 따라서 경제생활의 수준도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집락 2, 집락 3의 순이다. 집락 3에 속한 안달루시아, 무르시아, 까나리아스 등 3개 자치주는 집락 1과 2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1인당 평균지출이나 국내총생산은 낮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각 집락내에서도 개별 자치주간에 차이가 있지만 스페인은 크게 3개의 집락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집락 1로 구성되는 “선진지역,” 집락 2로 구성되는 “중간지역,” 그리고 집락 3과 4로 이루어진 “후진지역” 등이다. 이와 같은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각 자치주의 정체성 및 문화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스페인 사회가 갖는 다양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11> 집락별 사회경제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락	자치주	1차산업 인구비율 (%)	실업률 (%)	1인당 평균지출 (Pts.)	1인당 국내총생산 (전국: 100)
1	까딸루냐, 발레아레스, 칸따브리아, 아라곤, 마드리드, 나바르라 (6개주)	4.45 (3.04)	8.33 (3.21)	291,720 (14,270)	120.6 (20.5)
2	발렌시아, 가스띠야-레온, 갈리시아, 리오하, 가스띠야-라만차, 바스꼬, 아스뚜리아스 (7개주)	9.07 (4.88)	12.30 (2.44)	240,340 (8,770)	95.4 (13.8)
3	안달루시아, 무르시아, 까나리아스 (3개주)	10.43 (4.27)	17.30 (6.59)	217,030 (1,080)	83.2 (12.9)
4	엑스뜨레마두라 (1개주)	16.80 (-)	23.00 (-)	192,730 (-)	73.3 (-)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6) 이러한 구획은 다소 작의적인 것이긴 하지만 해석가능한 단계에서 끊어 범주화할 수 있다.

5. 종족, 민족, 언어의 다양성

자치주는 행정단위일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주는 종족 및 언어에 있어서도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언어도 까스테야노(castellano)가 공용어이기는 하지만, 까탈루냐, 발레아레스, 발렌시아 그리고 아라곤 일부지역에서는 까탈루냐어(catalán)를, 갈리시아에서는 갈리시아어(gallego)를, 바스꼬와 일부 나바르라 지역에서는 바스꼬어(euskera)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언어는 방언이 아니라 독립적인 언어로 그 위치를 지니고 있다. 프랑코 정권 하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 언어의 사용을 엄격히 억제하였으나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각 지방 언어는 다시 부활되기에 이르렀다(임호준·홍두승, 2000). 실제 1991년에서 1996년간의 기간에만 보더라도 까탈루냐 주에서 까탈루냐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1991년에는 89%였으나 1996년에는 95%로 증가하고 있음을 본다. 세 언어의 사용인구비율은 까탈루냐어가 가장 높고, 바스꼬어는 낮은 편이다(*La Vanguardia*, 1997년 1월 30일자).

물론 스페인 사회의 종족 및 민족문제는 북미 지역보다는 그 심각성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바스꼬분리주의자들의 테러행위는 스페인의 지역갈등의 대표적 예이다. 에따(ETA; Euskadi Ta Askatuta)로 불리는 바스꼬 지방의 테러리즘은 주목을 요한다. 에따는 바스꼬 지방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1959년 창설되었다. 에따란 ‘바스꼬 조국과 자유’라는 의미이다. 1936년에 발생한 스페인 내전 이전에 이미 바스꼬 지방의 독립을 얻기 위한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운동은 테러리즘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코에 의한 바스꼬 지방에 대한 억압은 1968년 현재의 에따가 태동하도록 하였다. 내전 기간 중 바스꼬 지방은 소련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실제 초기의 에따조직은 소련에 의해 조직, 훈련, 지원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소련의 지원이 중단된 후, 에따는 한 때 리비아의 카다피의 재정지원을 받은 바 있다. 에따의 30년간의 테러행위로 8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1937년 프랑코는 바스꼬지방을 점령하였고, 그 때까지 누려왔던 자치도 거부되었었다. 프랑코 정부는 이들의 독립열망을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코 시대에 바스꼬민족들은 크게 박해받았으며 자신들의 언어사용도 금지되었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 역시 억압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바스꼬인들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에따의 투쟁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프랑코 사후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망명인사들이 많이 귀국하였고 민주정부는 이 지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자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인구 약 250만명의 북부 바스꼬지방에게 독자적인 의회를 인정하고 교육, 세금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바스꼬 언어와 문화 역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권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에따는 더 이상 최초의 목적의 의미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1978년에는

에따의 정치적 대변기구로 에리바따수나(HB; Herri Batasuna; 인민연합)가 창립되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이 그 지역에서조차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묵시적 동조자들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행히도 1998년 9월 이들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무기한 휴전에 의해 아직까지 더 이상의 큰 인명 피해는 없다(강석영, 1991 참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더 큰 소외감을 느껴왔다는 것이다. 경제적 권력과 복지감이 정치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 같다(Linz and de Miguel, 1966). 까탈루냐 지역은 역사적으로 가스띠야 지방의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송기도 외, 1999 참조).

스페인에서의 지역간 갈등은 인종 및 종교문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말에 그라나다에서 무어족 왕국이 몰락한 이후 무어족(moriscos)과 유대인(judios)들이 이베리아반도에서 모두 축출되었으며, 따라서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스페인에서는 더 이상 큰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었다. 15-16세기경부터 집시족(gitanos)들이 몇가지 갈래로 유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스페인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집시족들이 이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고 있지만(<표 12> 참조), ‘빠요’(payo, 집시들 사이에서 집시가 아닌 사람들을 지칭)들에게는 단순히 ‘문화적 이질집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집시족을 다룬 사회학적 연구가 드물며, 오히려 이들은 인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 와서 다소 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이들은 지금 까지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는 등 빠요들의 거주지역과는 분리된 지역에서 거주해왔다. 가용한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1970년대 말경 스페인 전역의 집시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육체노동자와 농업노동자가 50%를 넘으며, 고철수집상이 14.8%를 이루고 있다. 상인이 20.6%를 점하고 있지만 이들도 대다수는 노점상 등 영세상인이다(San Roman, 1997).

<표 12> 집시의 직업분포, 1978

직업구분	%
육체노동자	30.9
상인	20.6
농업(계절)노동자	20.3
고철수집상	14.8
서비스·판매직 종사자(피고용)	7.4
기타	6.0

자료: San Roman(1997: 174).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서 스페인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도 점차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1999년 말의 공식통계를 보면 스페인 거주 외국인은 유로공동체가 31만2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모로코인 16만2천명, 중남미인 15만1천명, 중국 및 필리핀 등 아시아계 6만6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이민자들은 1995-99년 사이에도 크게 증가하여, 모로코나 중국인들은 이 기간 중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통계이고, 불법이민 및 체류자는 이 숫자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불법이민자들은 계층구조의 하부를 점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일탈 및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III. 결 론

본고는 특정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분석하기 보다 스페인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기술적으로 그려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스페인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동안 유럽내에서도 고립된 위치에 있었던 스페인은 사회노동당(PSOE;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을 이은 국민당(Partido Popular)의 아스나르 정부가 보여준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으로 실업률은 크게 감소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스페인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인 단위에서의 분석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지역간 불평등 자료도 행정군을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자치주를 단위로 함으로써 자치주내의 내적 불평등은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료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후에 보다 정밀한 자료가 가용하다면 스페인 사회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계층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 참고 문헌 ◆

- 강석영. 1991. 「바스꼬 분리주의와 테러리즘」. 『대테러연구』 14집. pp.231-300.
- 송기도·최낙원·최윤국. 1999. 「스페인 까탈루냐 지방 연구: 분권의 확대와 지역분쟁」.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2권. pp.133-179.
- 유엔개발계획(UNDP)한국대표부. 2000. 『인권과 인간개발』. UNDP인간개발보고서.
- 임호준·홍두승. 2000. 「스페인의 지역민족주의: 정치적 자치와 문화정체성」. 『국제·지역연구』 9권2호. pp.63-84.
-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pp. 536-537.
- Arribas, Rafael Gobernado. 1994. "Modernidad y estratificación social: Analisis comparativo de las estructuras sociales de Cataluña y Andalucía." *REIS(Revista Español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67. pp.87-107.
- Campi, Jesús Mestre. 1997. *Atlas de la transición: España, de la dictadura a la democracia(1973-1986)*. Barcelona: Ediciones Península.
- Carboni, C. 1984. "Observaciones comparativas sobre la estructura de clase de los países capitalistas avanzados." *REIS* 26. pp.129-149.
- Cazorla, José. 1973. *Estratificación Social en España*. Madrid: Cuadernos para el Dialogo.
- Comunidad de Madrid. 1991. *Clases Sociales: Estudio Comparativo de España y la*
- Comunidad de Madrid. 1991. *Informe de base realizado por Juan Jesús González*.
- De Miguel, Amando. 1994. *La Sociedad Española 1994-95*. Madrid: Editorial Complutense.
- Del Campo, Salustiano. 1989. *La Sociedad de Clases Medias*. Madrid: Espasa Calpe.
- _____. ed. 1994. *Tendencias Sociales en España(1960-1990)*. Vol.1-3. Bilbao: Fundacion BBV.
- El Pais. 2001. *Anuario El País 2001*. Madrid.
- Enguita, Mariano Fernández. 1993-94. "La autoridad en la estructura ocupacional." *Sociología del Trabajo* 20(invierno). pp.61-89.
- Garmendia, José A. 1997. "Formación y evolución de la estructura ocupacional en la sociedad de información. Referencia a España." *REIS(Revista Español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77-78. pp.35-49.
- González, Juan Jesús. 1996. "Clases, ciudadanos y clases de ciudadanos: El ciclo electoral del pos-socialismo (1986-94)." *REIS* 74. pp.45-76.

- INE. 1997. *Indicadores Sociales de España*. Madrid.
- _____. 2000. *España en Cifras 2000*. Madrid: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 _____. 2001. "Cifras de población referidas al 1/1/00." <http://www.ine.es>.
- Linz, Juan J. and Amando de Miguel. 1966. "Within-Nation Differences and Comparisons: The Eight Spains." en Richard L. Merritt and Stein Rokkan (comp.) *Comparing Nations*. New Haven: Yale Univ. Press. pp. 267-319.
- OECD. 2000. *OECD Economic Surveys, 1999-2000: Spain*. Paris.
- San Miguel, Luis G. 1980. *Las clases sociales en la España actual*. Madrid: CIS.
- San Roman, Teresa. 1997. *La diferencia inquietante: Viejas y nuevas estrategias de los gitanos*. Madrid: Siglo XXI Editores.
- Torres, José Andrés. 1993. "Estratificación Social." en Salustiano del Campo (ed.). *Tendencias Sociales en España(1960-1990)* Vol. I. Bilbao: Fundación BBV.
- Tezanos, José Félix. 1980. "La sociología de recelo; o cómo trivializar el debate sobre las clases sociales." *Sistema* No. 34(enero).
- _____. 1990(a). "Clases sociales." en S. Giner. *España, Sociedad y Política*. Madrid: Espasa Calpe.
- _____. 1990(b). "Desigualdades y Clases Sociales." en Salvador Giner y Luis Moreno. *Sociología en España*.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pp.149-154.

Social Inequality in Spain

Doo-Seung Ho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social inequality in Spain by looking at class stratific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In the twentieth century Spain shifted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to a service society through an industrial stage. In this process the new middle class increased while the old middle class and the working class shrank. For the analysis of social stratification in Spanish society an unequal development by region may not be overlooked. This society has diverse regional characteristics as viewed from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However, various socioeconomic indicators reveal that regional inequality and discrepancy have decreas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Based on recent statistics, this study classifies seventeen regions (comunidades autónomas) into the three groups such as advanced, intermediate and backward, and then examines the main features of each group. This article discusses that reg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socioeconomic resources and cultural identity highlight the internal diversity of Spanish society.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6-539.
Tel: (02) 880-6414(O). E-mail: dshong@smu.ac.kr